

문화

Culture

2007년 기대되는 공연·전시들

2007년에는 어떤 공연과 전시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공연 분야에서는 '대장금' 등 창작 뮤지컬과 세계발레스타 페스티벌, 영국 인터네셔널 세익스피어 글로벌극장 내한 공연 등 굵직한 작품들이 눈에 띈다. 미술쪽에서는 '르네 마그리트전, 오르세 미술관전 등 볼록버스터급 전시회를 만날 수 있다.

15 광주일보

제1764호 2006년 12월 29일 금요일

보조금 인상·상설 매장 증설

전남도,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 대책

전남도가 전통문화 계승 차원에서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에 국가 지정 16종 보유자 25명, 도 지정 29종 보유자 30명 등의 무형문화재가 있으나 최근 전수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보조금 인상과 공예작품 상설 전시회보관 매장 증설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월 60만원이 지급되던 전수활동 보조금이 80만원으로 인상됐고 전수 조교와 보유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월 30만원씩에서 35만원과 50만원으로 올렸다.

또 전남도청 1층 운선도홀에 공예작품 전시회보관 매장을 마련해 무형문화재 기능종목 국가지정 10종 11명과 전남도 지정 8종 8명의 공예작품을 전시, 홍보와 판매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문화광주' 4호 발간

'예술가와 예술인 정책' 등 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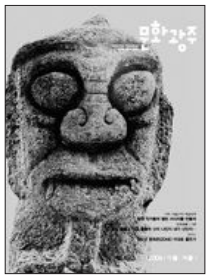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위원장 조동수)가 소식지 '문화광주' 제 4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기획 특집으로 이중인(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 박광서(전남대문화재단대학원장)씨 등이 필진으로 참여한 '예술가와 예술인 정책'과 '광주문화예술계의 결실과 전망'을 실었다.

또 2007년 광주시 교육청의 청소년 문화예술 정책과 청소년 문화존의 성과를 살펴봤으며 광주시의 문화정책도 소개했다.

나주 불화가 나들이길과 공예에 폭 빠진 의사 주재환씨의 삶도 읽을거리로 담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뮤지컬 '캣츠' '대장금' 주목

▲공연=최근 공연계의 화두는 단연 뮤지컬이다. 2007년에는 특히 다양한 창작 뮤지컬이 쏟아질 예정으로 있어 관심을 모은다.

차범석의 '산발'을 원작으로 한 '댄싱 새도우'(6월)와 드라마를 뮤지컬로 옮긴 '대장금'(5월)은 가장 화제를 모으는 작품. 또 '싱글즈' '댄서의 순정'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등 영화로 인기를 모았던 작품들과 1980~90년대 가요로 위풍이었던 '젊음의 행진' 등이 관객을 만난다. 또 프랑스 3대 뮤지컬로 꼽히는 '로미오 앤 줄리엣'(1월)과 '토요일 밤의 열기'(2월), '캣츠'(7월) 오리지널 팀도 한국을 찾는다.

세계적인 서커스 단체 '태양의 서커스'의 첫 내한공연 '퀴담'(3월) 역시 기대되는 작품 중 하나다.

유명 오케스트라가 대거 내한했던 올해와 달리 2007년 클래식 음악계는 규모면에서는 줄어든 모습이다.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2월), 원전 연주 의 거장 조르디 사발(3월) 바이올리니

스트 거대 크레이머(6월)와 조슈아 벨(7월), 성악가 제시노비(10월) 등 외국 유명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예정돼있으며 백건우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 역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용 쪽에서는 '춘향전'을 소재로 한 세계적인 안무가 미하일 포킨의 발레 '사랑의 시련'(10월)이 70년만에 복원돼 무대에 오르며 스페인 국립무용단 내

1월 세계발레스타 페스티벌 마그리트-오르세 한국전도 관심

한국공연(6월), 2007세계발레스타 페스티벌(1월) 등이 기다리고 있다.

연극에서는 오세익, 손진책, 윤호진 등 중견 연출가들이 '백백스' '신열하 일기' 등을 선보이며 영국 인터네셔널 세익스피어 글로벌극장의 '베니스의 상인'(10월) 등이 공연될 예정이다.

▲전시=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초현실주의 거장, 르네 마그

리트전'(4월1일까지)은 벨기에 출신 초현실주의 화가 마그리트 회고전으로 유화·드로잉·판화·회귀영상자료 등 270여점이 선보인다.

전주에 있는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중국 진시황 문명전'(1월 6일~3월4일)은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왕조를 이끌었던 진시황과 병마용을 비롯 중국 고대 유물 등을 통해 중국 역사의 흥망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전시다.

삼성미술관 리움은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의 작품세계(3월8일~6월3일)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를 마련한다.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는 프랑스 파리 오르세 미술관 소장품을 가져오는 '오르세 미술관 한국 특별전'(4월 15일~9월2일)이 열린다. 인상파의 효시가 되었던 모네, 고흐, 고갱, 세잔, 드가 등 대가들의 그림을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뮤지컬 '토요일밤의 열기'

"전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도입을"

광주비엔날레 평가·전망 토론회

광주비엔날레의 성장동력이 될 전시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비엔날레 재단을 대학과 연계한 연구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동광 전 서울대 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은 28일 광주비엔날레 재단에서 열린 '2006비엔날레 평가와 전망'토론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광주비엔날레 재단의 체계를 개편해 미술·문화 연구소로 바꾼 뒤 재단인력이 미술이론, 미술사, 예술행정 등 정규과정을 통해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소 전환과 함께 광주지역 대학이나 대학원과 학점교류, 인턴십 도입 등 상호네트워크를 구축, 전문인력을 길러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했다. 비엔날레 개최시 외부에서 수월한 전시 인력의 근무기간을 늘려 이들이 쌓은

노하우가 차기 비엔날레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이날 김영웅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연구원은 "광주비엔날레가 자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단을 독립재단체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재길 흥악대 교수는 "6회 비엔날레가 아시아성이라는 담론을 창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내달 19일 광주예총 회장 선거

김태욱·박윤모·최규철씨 출마표

제7대 광주예총 회장 선거가 내년 1월 19일 오후 2시 광주문화회관 대 느테상에서 열린다.

예총은 28일 협회 사무실에서 광주예총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선거 일정 등을 확정했다. 후보 마감은 2007년 1월 8일 오후 5시까지며 1천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총 회장 선거는 10개 협회 각 5명의

대외원과 회장단 5명 등 모두 55명이 투표권을 갖고 있으며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한다. 1차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 다득표자를 회장으로 뽑는다. 현재 임기 4년의 예총 회장 선거에 출마표를 던진 입지자는 김태욱(58·광주예총 감사), 박윤모(53·광주공예미술극장장), 최규철(53·전남대 미술대 교수)씨 등 모두 3명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9급 고모임

· 국가직 : 4월 14일 3,000명 시험
· 서울시, 광주시, 전남도 시험대비

농업직

· 전국에서 유명한 농업직 강좌
· 출제위원 이상우 교수님 직강

9급 교정직

· 특채전문반·교정직(형우현)·형소법(정영관)특강
· 공채전문반·4월14일 시험 완벽대비

강인중개사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주택관리사

1월 2일 개강

· 합격률 1위

· 227-8003
· 971-0002

전남고시학원

합격률 최고

www.Chonnangosi.co.kr

전남여고맞은편

(광주 동부경찰서 뒤)

상담전화 062)222-5105

첨단월계공인중개사

· 아파트 매매, 전·월세, 임대차

금보부동산컨설팅

· 부동산 컨설팅, 투자자문

금천공인중개사

· 부동산 매매, 전·월세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 부동산 매매, 전·월세

현대공인중개사

· 부동산 매매, 전·월세

(주)옥션코리아 법원경매

· 부동산 경매, 임대차